



#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 공군발전협회 제8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역할' 주제로

공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2020년도(제8차) 안보학술회의가 공군호텔에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역할'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최현국 합참차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예비역, 방산업체 임원, 안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보학술회의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일 공군발전협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축사 대독,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기조연설,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일 공군발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4차 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이 중요시 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회의가 전환기 안보상황에 대비한 미래 국방능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국 합참차장이 대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축사에서 "현대전에서 우주와 인공위성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우주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바, 국방부는 2018년에 군의 우주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우주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군은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에어포스 퀀텀 5.0'으로 명명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군이 도약해 나갈 대상 중 하나인 우주는 미래전장의 중심영역으로서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과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과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학교 신성호 국제학연구소장이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국방·안보전략'을, 항공우주연구원 김종범 박사가 '국제사회의 우주군사화 동향과 한국의 우주전략'을, 공군대학교 김광진 준장이 '미래전 변화양상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방향'을 발표했다.

신성호 국제학연구소장은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미래전 양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와 군사혁신의 요구는 21세기 대한민국안보와 국방에 공군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 준다. 때문에 공군이 우주영역에의 도전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 김종범 박사는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우주는 핵심 전략 결정요인"이라며, "우주분야의 중핵부자를 방지하기 위해 산·학·연·관·군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전 변화 양상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공군대학장 김광진 준장은 공군 창군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인 에어포스 퀀텀(Air Force Quantum) 5.0을 제시하며, "공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대 미래 핵심능력 분야에 대한 '공군 미래 도약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에는 김성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 안재봉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 및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가 참석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우리의 안보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전방위 국방태세확립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방정책과 미래 정예 국방력 건설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했다.//

## 국립 서울현충원 합동참배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본회는 6월 5일 10시30분 공군예비역단체인 공사총동창회, 학사장교회 등 소속단체 회원 약 150여 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훈탑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 모두는 조국을 위해 순

국하신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분향 및 묵념 등 참배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합동참배후에는 기생희별, 신분별 또는 개인별로 각기 연고묘역을 찾아 옛 전우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 중앙회 회장단 회의



본회 김성일 회장은 6월10일 공군호텔에서 본회 부회장 및 임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임원 선임증 수여, 회장 인사말에 이어 본회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보고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임원으로 위촉을 흔쾌히 승낙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우회 발전을 위해 우리 회장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전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전직 임원진 초청 오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5월 18일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전직 임원진 약 20명을 공군호텔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원 총장은 “지난 2년동안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를 이끌어 온 전직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국가안보와 공군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활동 강화와 친공군화 활동 및 공군의 울타리와 바

람막이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항상 공군과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호 전 회장은 “이런자리를 마련해준 원 총장께 감사드리며, 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와 현역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교류를 통해 군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공사 20기 동기생회, 본회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공군사관학교 제20기 동기생들의 모임인 청익회(회장 김정기) 회원 18명은 5월 19일 공군호텔에서 4월1일부터 취임한 김성일 본회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화환 증정 및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본회 김 회장은 “취임 축하와 아울러 발전기금을 후원해준 동기생 여러분들께 감

사드리며,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동기생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청익회장은 “전 동기생들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김 회장의 취임으로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의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 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



공군전우회 및 공군군수사령부는 7월 6일 본회 중앙회 임원, 대구지부장과 대구지역 6.25참전유공자 및 대구기지 지휘관 참모 등 코로나 19 방역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고 이근석 장군 약력소개,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가, 종교의식 순으로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고 이근석 장군은 초창기 대한민국 항공부대 창설과 전력화를 주도한 인물로, 6·25

전쟁 때는 F-51D 무스탕을 타고 최초의 전투기 출격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이 장군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차 대열에 포격을 가하던 중 피탄되자 적 전차를 향해 돌진하여 34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했다.

본회 김성일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장군님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그 어떤상황하에서도 조국하늘을 지켜내는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B 국민은행,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KB국민은행 임원진(기관고객그룹전무 한상건) 5명은 5월13일 공군발전협회를 방문하여 김성일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한 전무는 “공군발전협회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직접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협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공군발전협회 후원단체로서 2018년도에 이어 기부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 최차규 신임 공사총동창회장 내방



최차규 신임 공사총동창회장이 7월 1일 취임인사차 본회 김성일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최차규 신임 공사총동창회장은 “28기 동기생들과 함께 단결하여 활기찬 공사총동

창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본회 김 회장은 “예비역단체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신임 최 회장을 비롯한 28기수차가 공사총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광호 공군학사장교회장 내방



윤광호 공군학사장교회장이 5월13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6월24일 개최되는 공군발전협회 주관의 제8차 안보학술회의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김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공군력발전을 위한 안보학술회의 개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김성일 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공군 예비역 단체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 공군 ROTC장교회 회장단 내방



본회 산하단체인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형구) 회장단 3 명이 6월 10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전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형구 회장은 공군ROTC장교회의 일

반현황 및 주요 활동상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김 회장은 “공군 ROTC 장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며, 중앙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144기 학사사관 및 236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는 5월28일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44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및 4월29일 열린 제236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에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상을 전수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회장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사에 위임수여

하였는데 조은솔 소위와 정지우 하사가 각각 보라매 상장과 부상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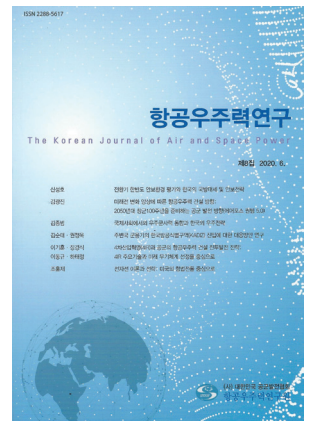
양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가족·지인 초청 없이 실시됐으며,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 항공우주력연구 제8집 발간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성일)는 공군 예비역 및 현역들의 학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우주력 연구’ 제8집을 6월30일 발간했다.

연구지에는 전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한국의 국방태세 및 안보전략(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 변화양상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김광진, 공군대학장), 국제사회에서의 우주군사력 동향과 한국의 우주전략(김중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장) 등 6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지인 ‘항공우주력 연구’는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한 안보전문지로서 관심 있는 국내안보전문가들에게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안보정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회 임원선임 현황

본회 김성일 회장은 지난 4월14일 정기총회에서 선임을 위임받았던 중앙회 임원을 2020.4.1일부로 각각 임명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가나다순)

- ◆ 부회장 (25명)  
강구영, 권오성, 김영혁, 김정운, 김진홍, 김호동, 김호연, 박경중, 박장경, 백운현, 안병걸, 윤우, 이구목, 이영희, 이인석, 임범택, 장흥진, 정덕용, 정주호, 정화균, 제종진, 차주성, 홍민, 홍성표, 황교선
- ◆ 감사 (2명) 김영근, 박병철
- ◆ 이사 (총121명, 특별이사는 별도관리)
  - 당면직 : 총 76명(회장, 부회장 25명 포함)
    - 중앙회 국장급(2명) 박정길, 염규열
    - 산하/협력단체장(10명)  
김정운(황성회장), 김진홍(항공총동창회장), 김형구(ROTC장교회장), 박동규(유치곤장군 호국정신보존회장), 이강욱(골프동호회장), 안화중(공군2사총동문회장), 이우희(조종간 부회장) 정화일(군무원회장), 차주성(원우회장), 최영직(산악동호회장)
    - 국내 지부장(6명)  
김중윤(부산), 김호중(대전), 남상석(대구), 장명선(제주), 정동철(광주), 최용주(인천)
    - 국내 지회장 (32명)  
권영화(속초), 김구식(원주), 김수영(양평), 김시영(의왕), 김영준(경주), 김영택(아산), 김용문(전주), 김정수(동두천), 김종완(창원), 김철준(화천), 노상윤(진주), 박갑용(사천), 박문석(성남), 박종재(군산), 신건영(포천), 양찬모(예천), 왕관현(평택), 은현기(군위), 이균신(청주), 이진권(철곡), 임현상(김해), 장호근(영월), 정도진(수원), 조동주(충주), 조봉환(충남서부), 조성수(문경), 최병훈(익산), 한상욱(이천), 허기영(영주), 홍만진(서산), 홍학기(금천), 황용기(강릉)
    - 임명직 (45명)
      - 산하/협력단체 (33명)  
권혁원, 김봉한, 김성대, 김영근, 김인기, 김춘동, 김학권, 김흥련, 박용서, 박태혁, 박평서, 서원명, 서운택, 손우석, 신상식, 심준택, 원종문, 유만호, 윤산중, 이성우, 이은수, 장호관, 정명섭, 정보용, 정상중, 정영진, 정창근, 조광래, 조용춘, 차수남, 채지광, 현창근, 홍종화
      - 산하 단체/지부(사무총장/국장 12명)  
강용기(항과교), 권혁진(ROTC), 김경태(부산), 서종관(제주), 손명락(원우), 신두철(대전), 유중호(광주), 윤양로(인천), 이원(군무원), 이정인(2사), 장근(황성), 정규채(대구)
- \*특별이사는 수시 변동으로 명단에서 제외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동호회 단체장 회의, 신임 이강욱 골프동호회장 취임



본회 산하단체인 골프동호회(회장 박영민)는 6월 26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20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운동 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에 이어 박영민 동호회장 인사말, 회무 보고 후 차기 회장단을 선출했다.

차기 회장단 선출에서는 골프동호회 이

강욱 부회장이 신임 동호회장에 선임 되었으며 7월1일부터 2년간 동호회를 이끌게 된다.

이강욱(예 중령, 공사 19기) 차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골프동호회 회원간 친목도모와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공군전우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공동발표문

한미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6월25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새벽 4시에 맞춰 공개한 발표문에서 한미 국방부는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치므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는 혈맹으로 탄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문에는 한미 국방부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면서 대전현충원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됐다. 추념식 주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이 주제에 모든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했다.//

###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6·25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6·25전쟁 70주년 행사가 25일 밤 서울공향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내는 경의를 담아 ‘영웅에게’를 주제로 진행됐다.



고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맞이하며 시작됐다. 그리고 전쟁 당시 공적을 70년 만에 확인해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14명(생존 참전용사 2명, 유족 1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생존 참전유공자 8만4000여 명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은화형 감사메달이 전해졌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6·25 참전유공자·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든 참석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2609명의 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담은 ‘122609태극기’ 배지를 달아 호국영웅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미국 하와이에서 공군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타

### 제 60주년 4.19 혁명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4월19일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 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를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4·19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겠다”며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軍 인도 완료

‘한국형 패트리엇’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天弓)’의 군(軍) 인도가 완료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4월28일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로부터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을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다. 3대의 차량에 각각 탑재되며, 1개의 발사대는 8기의 유도탄을 장착한다.

유효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km, 최대 속도 마하 5의 성능을 자랑한다. 360도 전 방향으로 운용이

공군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천궁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완료했으며, LIG넥스원이 생산해 2015년부터 군에 배치·운용 중이다.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천궁은 교전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됐

가능해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하나의 레이더에서 탐지·식별·추적·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했다. 5대로 이뤄진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1대의 레이더에서 표적의 방위·거리·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고, 빔 형상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주사해 탐지·추적·교전할 수 있다.//

### 6·25전쟁 기념 기장, 30년 만에 새로 제작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 군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호국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6·25전쟁 70주년 기념 기장이 만들어졌다.



국방부는 6월22일 희생·평화·번영을 상징하는 기장을 공개했다. 6·25전쟁 기념 기장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 이후 30년 만이다. 새로 만들어진 기장의 핵심 구성품인 정장에는 한반도와 태극 바탕에 주요 작전과 일자를 정교하게 새겨넣었다. 또 22개 유엔 참전국의 국기를 원형으로 상징화해 감사의 의미도 담았다. 특히 정장에는 순은이 일부 사용돼 품격을 높였다.

능을 유지하면서도 자체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군인의 명예와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이 용비어천가 서체로 쓴 ‘대한강군’ 휘호를 부장품으로 추가했다. 이 기장은 복무한 지 20년이 넘는 군인 모두에게 지급된다. 20년이 안 된 군인의 경우 구매를 통해 소장할 수 있다.//

약장은 조국수호의 의지를 담은 노란 선과 희망·번영을 상징하는 하늘색이 사용됐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백금으로 도금했다. 기장 보관함은 구성품을 보호하는 기

###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6·25전쟁 참전영웅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찾아 희생·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6월2일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발굴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며 “보훈제도를 잘 모르거나, 고령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찾아 희생·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와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해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훈처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참전유공자의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와 캠페인 누리집(http://www.참전유공자.kr)에서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면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참전 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 공군 연습기 ‘부활호’ 등 국가 과학유산 등록 추진

국내 최초의 핵융합 실험장치(SNUT-79)와 1953년 공군 정비교육대가 제작한 연습기 ‘부활호’ 등이 올해 국가 ‘과학유산’으로 등록 추진된다.

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 자료의 보존을 지원하는 등록 제도다. 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면 보존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재자나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 자료 후보로는 SNUT-79, 부활호를 비롯해 조선 시대 대동여지도, 동국팔도지도 등 4건이 신청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후보로 신청된 4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5월13일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역사적·교육

### 군 안전정책 '컨트롤 타워' 출범

국방부가 안전한 복무여건 마련과 국방 분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정책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5월7일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산·학·연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안전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꾸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통해 군 사고 재해율을 민간의 80~9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1999년 137명에서 2015년 28명, 지난해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한 번 혁신에 나섰다.

신설된 안전정책팀은 국방부를 중심으



로 전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전정책팀이 국방 분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안전하고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국방안전자문위원회는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등 민간 안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7월 전면시행

그동안 전 부대가 시범 운용하던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용되고 있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그동안 복무적응과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 휴대전화 사용이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등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장병들 외에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



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향군,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격려금 전달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5월11일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총 60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내 각 군 본부를 방문해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각각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군이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각 군 총장



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관옥 해군부회장이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 코로나19 사망 보훈 대상자 재해위로금

국가보훈처가 '적극 행정'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훈처는 5월19일 적극 행정 실천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박삼득 처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먼저 보훈 대상자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조치해 진료권을

보장했다. 또 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염병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도 했다.

천재지변·재해에 국한됐던 긴급 생활안정 대부지원도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나라사랑 대부 대상자는 재해복구비 600만 원, 격리자는 긴급자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자 다른 방안도 내놨다.//

### 6·25전쟁 기록 국가등록문화재 됐다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육군은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문화재청과 함께 6·25전쟁 기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국민에 공개한다"며 "문화재청에 따르면 근현대사를 통틀어 전쟁 기록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해 등록된 문화재다.

6·25전쟁 기록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작성됐다.

문화재로 등록된 6·25전쟁 기록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보존 서고에 있는 15개 유형 7512건이며, 약 8만 면(面)에 달한다. 생산 부대는 육군본부를 포함해 군단, 사단, 후방 부대 등이다. 사단 예하 연대 단위까지 구분돼 있다.

육군 외에도 해군·해병대·공군·국민방위군·경찰의 전쟁 기록과 미군 참전 지휘관의 전쟁 일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작전계획, 명령, 전투 일지, 육군본부 정기 작전보고 등이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백석산 전투 등 격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수록됐다.

화살머리고지 전투 기록은 일반 현황과 지형 정보, 작전 개요, 전투 전력 배치도, 전투 경과 약도, 미군·프랑스군·국군2사단 전사자 현황이 담겼다.

백마고지·피의 능선·단장의 능선 전투 기록에는 일반·무기 현황, 작전 경과 요도 등이 있다. 백석산 전투 기록에는 피아 전투 서열, 작전계획, 사단 일일 병력 보고, 피해 현황이 적혀 있다.//

### 6·25 전쟁 참전 22개국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K 방역모델'로 코로나19 위기에 현명히 대처해 세계의 이목을 끈 우리 정부가 22개국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70년 전 이들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보훈 외교' 차원의 결정이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5월 7일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미국 등 전투지원 16개 나라와 스웨덴 등 의료지원 6개 나라에 보내졌



다. 총 1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 나머지 21개 나라에 50만 장이 보내졌다.

위원회는 "21개 나라는 참전 인원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시 보상 강화된다

국방부는 6월11일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이날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도 일원화됐다. 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군인연금법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해 개정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주요 개정 내용이다.

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